

19세기~20세기 초 동 슬라브 민족 전통혼례복의 고찰

최수빈·조우현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Traditional Wedding Costume of East Slav (XIX~Early XX Century)

Choi, Su-Bin · Cho, Woo-Hyu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Inha University
(2000. 8. 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ostume and its ornaments which are appeared in the traditional wedding ceremonial customs and the wedding costumes of Eastern Slav, that is consisted of Russian, Belarusian and Ukrainian from the 19 to the early of 20 C. In this study, many different procedures of wedding ceremony with a various kind of wedding costumes are shown. A wedding custom of Eastern Slav had been developed by a intermixed style of the Christianity and a paganism. The wedding custom is organized by the 3 sequential procedures; before a wedding, a wedding, after a wedding Their wedding means the union of the bride into the bridegroom's family in order to establish a new family. Therefore, the wedding costumes have been developed according to this, and the head gears have developed as a symbol which presents the meaning. A bride's costume is composed of a head gear, 'Lubaha', and 'Sarafan' or a skirt. A bridegroom's one is made up of 'Lubaha', and trousers. These costumes are kept through their whole life, and are worn in every important ceremonial period. Even though, the wedding customs and the wedding costumes of Russia, Belarus, and Ukrain have been developed by their general commonness, there are regionally certain differences. It is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object of the Eurasian era in the view point of culture and ethnographic, that to know the symbolism appeared in the traditional weeding ceremonial customs and the wedding costumes of Eastern Slav.

Key words: wedding costumes, head gears, Lubaha, Sarafan, hair style;

혼례 복식, 관모, 루바하, 사라판, 수발양식

I. 서론

혼례는 인류의 보편적이며 중요한 통과의례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혼례의 문화적 표현인 혼례복식은 대 사회적 상징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각 민족의 고유한 가치관과 행복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반세기 이상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하여 문화적 교류가 단절되었던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 혼례와 혼례복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동 슬라브 민족은 한국 민족과 같이 스키타이 북

※ 이 논문은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9-DO79).

식문화의 영향下에 있었고 징기스칸의 유라시아 정복과 지배에 따른 유라시아 문화의 대 변역기를 함께 겪은 민족이다.

본 연구는 동 슬라브 전통혼례절차와 혼례복식을 고찰하고 이에 표현되어진 동 슬라브 민족이 가치관과 행복론 및 국교인 러시아 정교와 이교도적인 풍습이 융합된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 민족과 유라시아 민족간의 혼례와 혼례복식에 관한 일반성과 특수성을 규명해 가는 초기 연구라는데 있다고 하겠다.

선행된 연구에 의하면 동 슬라브 민족의 수발양식과 관모 착용은 혼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¹⁾.

이는 동 슬라브 민족 전통 혼례의 절차와 복식 및 그 상징성의 고찰이 한국 민족과 유라시아 민족간의 문화 접변 및 융화를 규명하는데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하는 연구임을 말해 준다.

연구 방법은 동 슬라브 민족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말까지의 민속학과 복식학 분야의 문헌과 러시아 민속 박물관과 백러시아 민속 박물관의 유물을 중심으로 결혼 풍습과 전통혼례복식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II. 역사적 배경

고대 동 슬라브 민족의 결혼의식은 6~7세기에 형성되었다²⁾. 당시 드네프르강 유역에 살던 고대 슬라브인인 '폴랴네(полянне)'는 밤중에 신부에게 가서 아침에 집으로 데려오는 형태의 결혼이 성행되었는데 이것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몇몇 부족은 약탈혼 풍습이 있었다³⁾.

기독교가 수용된 10세기말에서 11세기에는 기독교적 결혼의례가 확립되었다. 11세기부터 영주나 귀족들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였으며 이후 혼인식의 권리가 교회에 부여 되었고 교회에서의 결혼식은 전통혼례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다.

1649년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취왕은 이교도적이고 마귀적이고 미신적인 노래나 놀이등의 '수치스러운'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높이어 종교지도자들이 결혼예식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명령하였다. 17세기 후반 공식문서에는 서민들의 이교도적인 전통 혼례의식들을 '마귀적 행위' 등과 같이 표현하였다⁴⁾.

동 슬라브민족은 결혼의 의미를 경제적인 이유에 두어, 결혼으로 부유한 가정을 만들거나 일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신랑감과 신부감을 근면함과 인내력, 가정의 평판으로 평가하였다. 미혼의 남녀는 땅을 소유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떤 권리도 부여받지 못하여 조혼의 풍습이 생겼다⁵⁾.

18세기부터 19세기 초반 결혼적령기로 여자 16세, 남자 18세였다. 19세기 조혼의 풍습은 많이 사라졌는데 농사에 필요한 노동능력이 갖춰지는 나이를 고려한 결과이었다. 러시아 곳곳에서 전쟁을 치루기 시작한 1874년부터 남자의 결혼 적령기가 군대를 제대한 24~25세, 여자의 결혼적령기는 16~22세로 높여졌다. 이러한 관습은 계속 이어졌으나 지역 및 산업기반에 따라 결혼 적령기가 달랐다. 러시아의 남쪽지방과 동쪽지방 및 농업지역은 결혼연령이 빠른 편이었고 러시아의 북쪽지방과 공업지역은 농업지역보다 결혼적령기가 늦었으며 깊은 오지에서 수렵에 종사하는 남자의 결혼연령은 25~28세 이었다.

대부분의 동 슬라브족 사람들의 전통혼례의식은 중매로부터 시작되며 이것은 약혼과 같은 효력이 있었는데 신랑이 이 약속을 어겼을 시 교회에 일정한 배상을 하여야 하였다⁶⁾. 당시 교회에서는 근친간의 결혼, 이교도와와의 결혼이나 사회적 신분이 크게 나는 결혼 및 다중 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14~15세기에 와서는 첫번째 두번째 결혼에서 아이가 없을 때 세번째 결혼을 인정하고 세번째 네번째 결혼에서 얻은 아이를 상속자로 인정하여주었다.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에서 빠지면 안될 중요한 것이 바로 혼수이다. 고대에는 신부가 가정살림에 필요한 식기나 침구를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차차 신부소유의 지참금이나 가축이나 토지등을 혼수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부가 죽으면 이것은 그의 자식이나 자식이 없을 경우 친아버지 집으로 상속되었다⁸⁾.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는 이상과 같이 가정의 경제적인 기반의 확립과 후계를 위한 연합으로 이루어 졌다.

동 슬라브 민족의 민요들을 살펴보면 결혼할 여성이 앞으로 겪게 될 힘든 생활을 안타까와 하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결혼하는 남성의 책임과 여성의 역할을 잘 대변하여 준다.

Ⅲ.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 혼례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의식에 관한 기록은 19세기 중반의 자료로서 공간적 시대적인 분류를 통해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혼례를 잘 규명하고 있다. 19~20세기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혼례는 사머니즘과 토데미즘 등의 주술적인 풍습과 기독교적인 관례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교도적인 즉 미신적인 풍습은 혼례를 나쁜 힘에서부터 지키고자하는 기원과 부와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행하여졌다. 혼례마차를 타고 가면서 공중에 총을 쏘 악령들이 도망가게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나쁜 영들이 뒤쫓아 오지 못하게 한다고 믿었다. 신부에게 그물을 씌우고 귀가 없는 바늘을 꽂았는데 그물로 더러운 영을 속이고 바늘에 찔리게 하여 신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고 여겼다. 금육과 절제, 신랑 신부의 침묵 그리고 결혼까지의 신랑 신부의 금식을 통하여 나쁜 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고 나쁜 시간이나 날을 피하여 혼인날을 잡았다.

19~20세기 초의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 혼례를 '스바지바(свадьба)' 라고 하였다. 이 단어는 동 슬라브 민족의 공통어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베실랴(весілля)' 백러시아는 '바셀레(вяселле)' 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동 슬라브 민족의 '스바지바(свадьба)' 는 결혼식 뿐이 아니라 결혼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의식과 그의 절차 전체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의식인 '스바지바(свадьба)' 는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婚禮前' 단계로 이것은 중매부터 결혼식전 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둘째 시기인 '婚禮式' 날은 교회에서 치르는 결혼 서약일(결혼식) 아침부터 결혼 첫날밤 전 까지의 기간, 세

째로 '婚禮後' 단계는 혼인 후 모든 기간을 통틀어 지칭한다.

'婚禮前' 단계는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 진다. 혼례의 시작은 신부감을 찾아가서 예비 신부의 승낙 아래 그의 됴됨이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부감을 살펴본 후 신부감이 결정되면 중매자를 세워 신부측에 정식으로 중매의 말을 전한다. 그런 다음 신부측은 신랑감을 살피고 신랑감의 생활 능력과 가정을 살핀다. 이로 인해 혼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중매가 성사된다. 신랑과 신부의 부모들이 결혼을 결정하면 손을 마주 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보가말리에(богомолье)', '오브라조후카(образовка)' 라 한다⁹⁾. 이 일련의 의식이 이루어지면 드디어 약혼식을 치르게 된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친근해 지도록 혼인 전날 신부의 집에서 친구를 초대하여 잔치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비쉬닉(девишник, девичник)' 이라고 하는데 20세기 초 몇몇 지역에서는 신랑의 집에서 신랑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하는 '말취쉬닉(мальчишник)' 을 하였다. 이와 같이 '婚禮前' 단계의 의례는 신부감 결정 시기, 중매기, 중매성사기, 약혼으로 이어지며 거행된다.

동 슬라브 민족 전통 혼례의 두번째 시기인 '婚禮式' 도 다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결혼식날 아침에 신부는 미혼녀의 전통 頭髮樣式인 변발을^{9, 10)} 풀고 신랑에게 변발을 파는 의례 후에 교회에서 혼례의 축복을 받는다. 다음 단계는 혼수를 가지고 신랑이나 신부의 집으로 가서 頭飾을 바꾸어 쓰는 의례를 하고 마지막으로 혼인 첫날밤을 지낸다.

'婚禮後' 단계에는 신부의 집을 방문하여 잔치를 한다. 이 와 같은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혼례의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의식들이 증감되기도 하였다.

Ⅳ.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복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복은 평상복과 비교하여 착용되는 의복의 종류에는 큰 변화가 없다. 신부는 그들의 민족복식인 루바하(рубаха)와 사라판

(сарафан), 루바하(рубaha)와 치마(юбка)를 입고 신랑은 루바하(рубaha)와 바지(брюки)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신부의 수발형태와 관모는 기혼녀의 것으로 바뀌었다. 신부에게 기혼녀의 관모가 씌워지는 것은 한 남편의 부인으로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한다. 신부의 관모는 신랑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돕는 배필로 살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복은 혼례절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별 차이가 있으나 신부와 신랑은 혼례절차에 맞추어 혼례복을 갈아입는다.

본고는 일반적인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 절차에 따른 혼례복을 의복의 요소별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1. 수발 양식과 관모

수발양식과 관모는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혼례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의 수발양식과 관모도 미혼녀와 기혼녀로 구분하여 형성되었다. 미혼여성은 두발을 자유롭게 보일 수 있는 반면 기혼여성은 반드시 관모를 착용하여 두발을 가리웠다. 동 슬라브 민족은 두발이 종교적,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므로 혼례의식 중에 두발의 형태를 바꾸는 의식은 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혼례의식 중에 신부의 머리형태는 여러 번 바뀌었다. 미혼녀의 일반적인 두발양식은 변발로써 러시아와 백러시아는 한 줄로 우크라이나에서는 2줄이나 그 이상 변발을 땅아 내렸다. 신부는 혼례전날 목욕 전후에 변발을 풀었고 결혼식까지 이 변발을 다시 땅지 않았다¹¹⁾. 동 슬라브 민족의 한 지방에서는 신부가 고아일 경우에 변발을 풀 수 있었고 양친 중에 한 분만 돌아 가셨을 때에는 반만 변발을 풀 수 있었다.

20세기초 까지 동 슬라브 민족의 미혼녀들은 변발의 끝을 까스니끼(каснікі)라는 리본으로 장식하였다. 까스니끼(каснікі)는 여러 색상의 얇은 리본이나 줄로 변발의 끝 부분에 놓고 같이 땅아 내리기도 하였다. 신부는 변발을 풀면서 변발을 장식하였던 까스니끼(каснікі)를 어머니나 가까운 여자친구에게 주었다.

일반적으로 신부의 변발을 증매자나 남동생이 풀었고 부모가 먼저 신부의 변발을 풀기 시작하여 다음으로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며 변발을 풀기도 하였다¹²⁾. 그리고 아마, 면, 빨라톡(платок)¹³⁾ 이나 돈등을 신부에게 선물을 하였는데 이 의식을 '변발위에 놓기(положить на косу)'라고 한다. 이 '변발위에 놓기(положить на косу)'는 신부가 원하는 것을 결혼 전에 선물을 하는 풍습으로써 교회의 代母는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 셔츠인 '루바하(рубaha)의 윗부분 '루카바(рукава)'를 선물하였고 代父는 聖像과 빵을 선물하였다.

신부의 머리카락 자르기 풍습은 원시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굴복하고 순종의 표시에서 기인하였다¹⁴⁾. 이는 옛 혼례의식에서 자주 보이며 신랑은 신부의 변발을 자른 다음 신부의 어머니는 잘린 변발을 건네주며 '변발을 머리와 같이(with head) 가지세요. 신부의 주인이 되시고 신부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Возьми косу вместе с головой, будь её господином, а она будет твоей рабой)'라고 하였다¹⁵⁾.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동 슬라브 민족의 독특한 형태의 신부를 신랑에게 건네주는 증서였다. 신부 머리를 자르는 것은 기혼녀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원시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굴복과 순종의 표시였다¹⁷⁾. 머리를 올리고 기혼녀의 관모를 착용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남편의 집안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¹⁶⁾.

동 슬라브 전역에 변발을 파는 풍속이 널리 행해지는데 변발을 자르던 혼례의식이 상징적으로 남은 형태이다. 동 슬라브 전역에 퍼진 변발을 파는 풍속은 신부의 미혼 남동생이 주도하여 결혼식 날 아침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을 때 행해진다. 만약 미혼의 남동생이 없으면 다른 남자 친척이 이 역할을 대신하였다. 변발을 파는 것은 신부를 파는 것을 의미한다. 신부 머리를 자르는 것은 기혼녀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원시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굴복과 순종의 표시였다¹⁷⁾. 현재도 '신부팔기' 풍속이 남아서 행해지고 있다.

19세기 중엽까지도 백러시아에서는 신랑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것을 불에 태우는 풍습이 있었다.

부모는 이마, 뒤통수, 귀 근처의 머리카락을 십자가 모양으로 칼로 자른 후 불에 태웠다¹⁸⁾. 다른 지역에 선 신랑과 신부의 빗질한 머리카락을 반지 같은 고리에 끼워서 불에 태웠다¹⁹⁾. 동 슬라브 민속학자들은 백러시아에서 신랑의 머리를 깎는 풍습의 기원을 성인 남자가 되는 것의 표시라고 생각하였다²⁰⁾. 신랑이 머리를 깎을 때 부르는 한 민속노래의 가사를 보면 'Подстригайся, Янечка, з робячкага стану, да у мужскую славу' 이라고 하여 '머리를 깎는 것은 남자의 영광' 이라고 노래하였다. 민속학자인 니폴스키는 이 노래를 부르며 신랑의 머리 깎는 풍습은 옛 부터 내려오는 남자의 성년식의 풍습이 혼례의식에 첨가되었다고 보았다²¹⁾.

혼례에서 중요한 행사가 관모를 바꾸는 것이다. 동 슬라브 민족의 관모는 다른 의복보다 사회적 신분과 연령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혼인여부에 따라 관모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기혼녀는 머리를 관모로 모두 가리었고 미혼녀는 정수리 부분을 내놓아 머리카락을 보일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약혼녀는 꽃을 장식한 베녹(венок)을 공작새의 깃털로 장식하거나 빨라톡(платок)을 말아서 정수리 부분이 열린채로 베녹(венок)을 감았다. 혼인을 1, 2주 앞두고 꽃 장식한 베녹을 착용하고, 신랑이 사준 20가지 색깔의 리본으로 변발을 장식하였다²²⁾.

러시아 북부의 볼로고드스카야 지방에서는 19세기말까지 미혼에서 기혼으로 가는 중간단계의 여성 관모가 존재하였다. 미혼녀들은 금사로 수놓아 장식한 빠바스카(повязка)를 머리에 묶었다. 그러나 약혼 후에는 레이스나 천에 금사로 수놓은 타원형 모양의 나쭌니크(натёмник)로 정수리를 덮었다²³⁾. 이 지방의 약혼녀의 원뿔 모양의 깔빡(колпак)은 곧 혼인할 신부임을 표시하는 동시에 순결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북부의 아르항겔스카야 지방에서는 약혼녀는 빨라체야(плачя)라는 관모를 썼는데 이 관모의 딱딱한 부분은 말발굽형으로 정수리 부분이 열려있고 면을 누벼서 만들었다(그림 1).

러시아의 기본적인 혼례 관모인 까루나(коруна)는 19세기까지 착용되었다. 까루나는 미혼녀의 빠바스카(повязка) 위에 썼다. 혼인 관모는 진주와 비



[그림 1] плачя—빨라체야(Маслова Г.С.,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в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ычаях и обрядах XIX—началаXXв., 1984)

단을 사용하여 혼수로 준비되고 딸에게 대물림되기도 하였다(그림 2).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혼인을 위한 특별한 관모를 준비하였다. 백러시아에서는 나무의 껍질로 관모의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수놓은 천을 짠 아브루취(обруч)모양의 관모를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지방에선 생화로 장식한 베녹(венок)을 신랑, 신부 모두 착용하였으며 베녹(венок)을 만들기 위해 꽃을 따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그림 3).

신부의 혼인관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크리발라(покрывало)로 관모에 덧씌우는 옷감이 있다. 이것은 미혼녀나 기혼녀의 관모인 빨로텐짜(полотенца)²⁴⁾로 스키프형 관모하고는 다르게 신부의 얼굴을 덮었으며 경우에 따라 신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는 것도 있다. 약혼기간동안엔 스키프형 관모인 빨라톡(платок)으로 덮고 있으나 혼인날은 술이나 식탁보 또는 이불로도 신부를 덮었다. 교회에서 모든 손님이 모인 가운데 예식 중에만 신부의



[그림 2-1] коруна



[그림 2-2] коруна(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그림 3-1] 백러시아 венок—베녹
(Романюк М.Ф., Беларуская
Народнае, 1984)



[그림 3-2] 우크라이나
венок—베녹



[그림 3-3] 우크라이나(Маслова Г.С.,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в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ычаях
и обрядах XIX—началаXXв., 1984)

빠크리발라(покрывало)를 벗겼으며 혼인식이 끝나면 신부를 다시 솔이나 베일로 덮었다. 이와 같이 신부를 싸는 것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옛 풍습이다. 신부의 싸개는 신랑집의 출입구의 반대쪽에 있는 신성한 구석²⁶⁾인 상석에서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신랑이 막대기나 막대기 모양의 빵으로 벗겨내었다. 16~17세기에는 빠크리발라(покрывало)를 화살로 벗겨내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신부의 싸개를 벗기는 것은 신부가 신랑집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부를 신성한 상석에 앉히고 신랑의 어머니가 빨로 싸개를 벗겨 빼취²⁷⁾에 던졌다²⁸⁾.

백러시아 벨레시아 지방에서는 신부의 싸개를 악사가 바이올린 활로 벗기어 내어 같이 춤추고 있던 신랑의 어머니에게 주면 이 싸개를 빼취에 던져버렸다²⁹⁾.

신부의 싸개는 각 지방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발달하여 왔다. 이 싸개를 벗기는 것은 결혼식



[그림 4] 혼인행렬(Макашна Т.С., Свадебный обряд)

의 가장절정에 달했을 때 이루어지며 신부가 신랑의 집안에 귀속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관모는 신랑과 들러리들에게도 중요한 혼인복식의 하나로 신랑은 혼례식 모든 절차에서 관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었다. 신랑은 계절에 무관하게 털모자를 착용하였으며 관모는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적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혼인 행렬도 관모를 벗지 않았다(그림 4).

그러나, 중앙 러시아의 아렌부르그스크군, 벨로제르스크군과 노브고로드스키현에서는 교회까지 가는 도중 신부는 덮어서 데리고 가지만 신랑과 혼인행렬 모두 모자를 벗기도 하였다.

백러시아 민스크 현의 여러 곳에서는 신랑의 관모를 천으로 만든 나비모양의 리본으로 장식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신랑의 관모에 리본을 늘어뜨렸다.

신랑의 관모를 신부가 쓰는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은 불가강유역의 마리족에서도 행해졌다. 신부가 신랑의 관모를 쓰는 것은 부부의 연합을 의미하며 신부가 신랑의 집에 합하여 한 식구가 되었다는 뜻이다.

2. 머리 올리기, 관모 바꾸기

신부의 머리올리는 혼례의 절차중 정점에 해당된다. 신부는 기혼녀가 되었다는 의미로 머리모양을 바꾸고 관모를 바꾸어 착용하였다. 관모는 지방마다 특색있는 기혼녀의 관모를 썼는데 러시아에서는 까꼬쉬닉(кокошник), 뿔이 달린 키취까(кичка), 빠보이닉(повойник), 스보르닉(сборник) 등을 썼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오취빠(очіпок), 나미트까(намітка), 란뚜흐(рантух), 세르빠녹(серпанок)을 쓰고, 백러시아에서는 철페즈(чепец), 나미트

(наметка)를 착용하였다. 20세기 초 이들 관모는 스카프로 대체되었다. 기혼녀가 두발과 머리를 가리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다. 이 관습은 도시화로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나 19세기~20세기초까지도 많은 지방에선 이 관습이 지켜졌다. 동 슬라브 민족은 기혼녀가 머리를 보이는 것은 곡물의 수확이 없고 가축이 죽는 불운을 가지고 온다고 믿었으며 이 풍속은 이웃한 민족에서도 보여진다²⁹⁾. 민속학자 가겐토른(Гаген-торн)은 신부가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의 마술적 힘이 친정에서 함께 와서 신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어져 머리를 가리고 관모를 썼다고 보고하였다³⁰⁾.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에서 관모를 씌울 때 신부가 저항하는 의례가 있었는데 이는 19~20세기에는 상징적 의미만 남게 되었으나 이 풍습은 대 가족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권리는 없고 많은 의무만을 수행하며 살아야 할 젊은 부인에 대한 괴로움을 표현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신랑이 기혼녀의 관모인 퀘페츠(чепец)를 신부에게 씌우면, 신부가 이 모자를 떨어뜨리고 신랑이 다시 주워서 씌우는데 이 같은 행동을 두 번 반복하고 세 번째에는 관모를 착용하였다. 백러시아에서도 신랑이 이와 동일한 절차를 가졌으며 세 번째에는 신부의 머리 위에 관모를 깊이 눌러서 씌웠다. 기혼녀의 쓰개형 관모인 나메트카(наметка)를 씌울 때 신부의 친구들은 이것을 방해

하기도 하였다(그림 5).

이 관모를 씌우는 의식에서 중매자나 대모 혹은 신랑이 신부에게 모자를 씌웠다. 러시아에서는 결혼식후 교회 앞 계단이나 신랑의 집에서 이 의례를 행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에서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의 집에 가서 특별히 준비된 장소인 독립된 가옥이나 현관, 헛간, 지하실, 커튼 뒤, 천이나 베일을 늘어뜨린 곳에서 신부의 머리를 올렸다. 백러시아에서는 시어머니가 곡식창고에서 머리를 올리기도 하였다.

신부의 머리를 양가 중매자들이 땅았으며 신랑과 신부의 중매자들이 양쪽에서 빨리 땅기 경쟁을 하였다. 어느 중매자 먼저 땅었는가에 따라 신랑이나 신부가 결혼 생활을 주도하게 된다고 여겨졌다. 다른 지방에서는 머리는 땅지 않고 머리띠에 감아 올려서, 그 위로 나메트카(наметка)나 퀘페츠(чепец)를 썼다. 이러한 모습이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의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수발형식과 관모의 형태이다.

머리를 올리는 의례는 혼례식용 전통 빵 까라바이(каравай)(그림 6)을 나누기 전후에 한다. 신부의 머리를 올리고 관모를 씌우는 풍습에는 까라바이(каравай)빵을 반드시 사용하였다. 백러시아의 혼례식엔 까라바이(каравай)와 퀘페츠(чепец)를 친정어머니가 광에서 꺼내와 상에 놓았다.

머리를 올리는 예식은 기혼녀의 수발양식을 만들고 머리카락을 숨기는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 남편의 집에 연합하고 남편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풍양(豊穰)과 부(富)를 상징하였다.

3. 루바하(рубахa)

루바하(рубaха)는 여성과 남성의 기본적인 복식



[그림 5] 신부에게 부인용 관모를 씌우는 의식. 왼쪽에 중매자가 들고 있는 접시는 관모를 놓았던 것임—에카테리노 슬라브스카야현(Маслова Г.С.,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в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ычаях и обрядах XIX—началаXXв.,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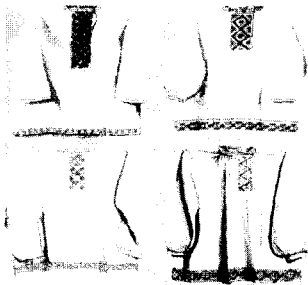


[그림 6] 까라바이(Минько Л.И., Колендарные праздник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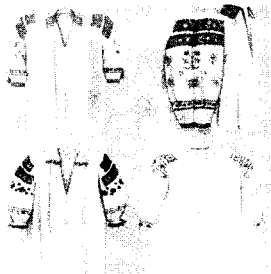
으로 튜닉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동 슬라브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의상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까지 지방에선 외출복과 실내복으로 겸용하였다. 시골의 젊은 남녀는 혼인 전까지 긴 루바하(рубахa) 하나만 착용하였고 바지는 신랑의 혼인예복과 같았다. 동 슬라브 민족의 미혼남자들은 결혼 전 까지 무릎까지 오는 긴 루바하(рубахa)에 허리띠를 매고 다닌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 모습은 20세기에 오면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루바하(рубахa)를 파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들이 착용하던 루바하(рубахa)는 팔지 않기도 하였다²⁾.

혼례용 루바하(рубахa)는 집에서 짠 흰색의 면으로 앞, 뒷길에 중간 가로 이음이 없이 한 장의 천으로 재단하였다. 혼례용의 긴 루바하(рубахa)는 빨간색의 실로 장식하였고 마름모 모양의 줄무늬, 기하학적 무늬등을 수놓았다. 무늬는 수평적으로 줄을 맞추어 배치하였으며 옷 가장자리, 옷깃과 소매에 장식하였다.

남성용 루바하(рубахa)도 빨간색의 무늬가 소매



[그림 7-1] 남성용 루바하(Молчанова Л.А., Одежда Минск 1998)



[그림 7-2] 여성용 루바하(Молчанова Л.А., Одежда Минск 1998)

끝 옷깃과 어깨등에 마름모와 기하학적 무늬를 가로줄로 수놓았다. 또한, 혼례용 루바하(рубахa)는 중요한 명절시에만 착용되었다(그림 7).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루바하를 사로까(сорока)라 불렀다. 사로까(сорока)는 그 형태와 장식이 다양하고 재단한 패턴의 모양 또한 다양하다. 장식도 다른 동 슬라브 민족의 루바하(рубахa)보다 화려하고 다양한 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목부분에 연결되는 어깨선에 잔 주름을 많이 잡아서 풍성한 어깨선을 만들었다. 사로까(сорока)는 허리띠로 둘러서 고정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여성 혼례용 사로까(сорока)는 20세기 초 키예프현의 자료만이 남아있다. 하얀 면소재로 앞, 뒷길이 식서 방향이며 풍성한 소매를 가지고 있다. 높지 않은 스탠칼라에 점정과 빨간색으로 기하학적 무늬의 십자수가 놓여있다.

혼례용 루바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고 일생 동안 중요한 때마다 착용되었다. 어려운 해산때나 병이 걸렸을 때에도 사용되었다. 신랑의 혼례용 루바하(рубахa)는 날을 정하여 신부가 만들었고 신랑은 혼인전에 신부가 만든 루바하(рубахa)를 반드시 착용하였다²⁾(그림 8).

4. 사라판(сарафан)

사라판(сарафан)은 동슬라브 민족의 여성의 대표적인 복식으로 잠바 스커트형태의 치마를 말한다. 동슬라브 민족의 사라판은 병어리 형, 넓은 형, 주름형, 리프(가슴판)형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에서는 치마나 리프(가슴판)가



[그림 8-1] 남성 혼례복



[그림 8-2] 남성 혼례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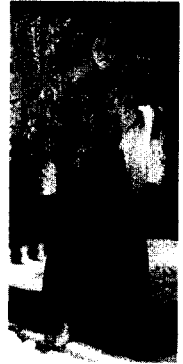
[그림 9-1] 19C 중엽 혼례용 사라판(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1988)



[그림 9-2] 19C 말 푸른색 면 사라판(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1988)



[그림 9-5] 9C 초 혼례용 비단 사라판(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1988)



[그림 9-6] 19C 초 혼례용 비단 사라판(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1988)



[그림 9-3] 19C 말 혼례용 공단 사라판(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1988)



[그림 9-4] 19C 말 혼례용 면단 사라판(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1988)



[그림 9-7] 19C 혼례용 사라판(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1988)

달린 사라판(сарафан)이 널리 착용되었다(그림 9).

19세기 여성의 혼례용 성장도 바로 루바하(рубaha)와 사라판(сарафан)으로 구성된다. 러시아의 바로네취스크현의 혼례용 사라판(сарафан)은 검정색 모직으로 만들어졌고 병어리 사라판(сарафа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스몰렌스크현에는 1870년대에 만든 검푸른 공단의 혼례용 사라판(сарафан)이 보존되어 있다. 이 사라판(сарафан)은 3장의 직사각형 천과 2장의 삼각형 천으로 만들어지고 빨간선으로 가장자리를 두르고 금은 실 위에 색깔있는 유리단추를 달았다³⁾.

우랄 지역의 혼례용 복식은 다른 지역과 조금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코프타(кофта), 사라판(сарафан)과 루바하(рубaha)로 이루어져 있다. 코프타(кофта)는 이 지역의 특징적인 루바하(рубaha)로써 퍼프 슬리브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단을 소재로 금 색깔의 작은 꽃무늬가 장식되어있다. 사라판(сарафан)의 소재도 여러 색깔이 나는 녹색 비단으로 만들어진 바이어스방향의 넓은 사라판(сарафан)으로 허리띠를 띠었다(그림 10).

5. 특수한 혼례 복식과 그의 상징성

신부의 혼인 복식은 혼인식 전, 후가 뚜렷이 구분된다. 러시아의 남부지방에서는 혼례복식에 첫 번째



[그림 10] 유랄의 혼례용 루바하와 사라판(Мерцалова М.Н., Пoes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그림 11] 빠노바 위에 앞치마 착용(Одежа народов СССР, 1990)

시기에는 슬픔을 두 번째에는 기쁨을 표현하였다. 라잔현에서는 신부가 혼례식전에 하얀 면의 상복용 빠노바(понёва)를 입었다. 그러나 혼례가 끝난 후 집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성장용 빠노바(понёва)로 바뀌어 입었다. 신부가 착용하는 루바하(рубaha)에는 아무 장식을 하지 않았다.

빨루쥬스크현에서는 신부가 혼례를 앞두고 기존 농부의 상복을 입었다. 장식이 적은 빠노바(понёва)와 빨간부분이 없는 흰색의 루바하(рубaha)에 하얀 머리수건을 하였다. 혼인 만찬후에 신부는 상복을 벗고 화려한 금은 장식끈과 반짝이는 금속판, 붉은 직물과 리본끈으로 장식한 의복을 착용하였다.

때론 신부는 미혼녀의 사라판(сарафан)과 가벼운 검정색 모직외투를 착용하고 상복용 하얀 머리수건을 하기도 하였다. 맘보브스키 현에서는 특별한 상복을 입었는데, 빨간색의 장식이 없는 검정색 소매의 루바하(рубaha)를 입었다.

1920년대 갈루쥬스키 현에서 보존된 신부의 루바하(рубaha)는 하얀 면 소재의 빨간색 장식이 없고 옷 단 끝까지 내려오는 긴소매가 달렸다.

아르항겔스키현에서는 혼례행렬이 올 때 신부는 반드시 털 코트밑에 나쁜 옷을 입고 누워있어야 했다. 그 후에 신부는 세면을 하고 치장을 하였다. 이 풍습은 19세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신랑과 신부의 성장은 기도와 소망을 상징하였으며, 신부의 신발에

는 은전을 채워서 부를 빌었다.

19세기~20세기 초 루바하(рубaha)는 염색하지 않은 천이나 여러 가지 색깔의 화려한 천으로 만들었다. 기본적인 신랑의 복식은 신부가 만들거나 선물한 것이었다. 몇몇 지방에서는 신랑이 어깨에 빨간 보(платок)을 두르기도 하였는데, 이 보는 고대의 외투가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보는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하는 것으로 허리띠 밑에 고정시켜서 착용하거나 어깨에 걸쳤다.

현대복식은 전통복식과 융합하여 민족복식을 형성하곤 한다. 러시아 남쪽 지방에서도 20세기 초 도시의 혼인드레스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혼례식의 예복으로 드레스나 사라판이 사용되었다. 혼인예식 후 신부는 빠노바를 착용하거나 일년동안은 예복용 사라판(сарафан)을 착용하였다.(그림 11)

동 슬라브 민족은 넓은 지역에 분포하여 타민족과 끊임없는 문화 접변을 이루며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혼례와 혼례복식도 일반적인 공통성과 함께 각 지방마다 독특한 형식과 형태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혼례복식은 심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수행하면서 동 슬라브 민족의 전형성을 갖고 있다.

V. 고찰 및 결론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 혼례와 혼례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1. 신부는 혼례시 기혼녀의 수발양식과 관모로 바꾸어 착용하였다. 전통적인 기혼녀의 수발형태는 머리를 올리고 관모를 써서 두발을 감추는 것이었다. 기혼여성의 관모와 수발양식은 엄격히 구분되었는데 그것은 남편에 대한 복종과 남편의 가정에 복속된 것을 의미하였다.

2.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 중에서 중요한 절차로 신부의 변발을 파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부가 신랑에게 귀속되어 복종할 것을 의미하였다. 신부가 쓴 관모위의 덮개는 신랑의 집이나 신부의 집에서 절차에 의해 벗겨졌는데 이 쓰개를 벗기는 행위는 신부가 신랑의 집안에 귀속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대부분의 지방에서 신랑은 혼례의 모든 절차에

서 관모를 벗지 않았다.

4. 혼례복식은 신랑은 루바하(рубаха)에 바지와 관모, 신부는 루바하(рубаха)와 사라판(сарафан)이나 치마와 관모로 이루어 졌다. 혼례용 루바하(рубаха)는 평상복보다 많은 장식을 하였고 사라판(сарафан)이나 치마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관모는 러시아에서는 진주나 보석으로 장식하였고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생화와 조화, 새의 깃털로 장식하였다. 신부는 신랑의 혼례복으로 새 루바하(рубаха), 바지를 준비하였고 신랑은 신부의 혼인 예복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5. 혼례복은 대부분의 복식이 상징성을 가지고 착용되었다. 많은 부분은 행복과 부를 비는 것이었고 또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러운 옷이나 상복이나 그물 등과 같은 것을 이용하였다.

6. 혼례의식의 절차로 동 슬라브 민족 모두 婚禮前 기간인 중매의 단계, 婚禮式 날인 성혼의 단계와 婚禮後의 의식인 축제의 단계로 나뉘어져있다.

7.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 혼례는 이교도적인(미신적인) 풍습과 기독교적인 풍습이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상에서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절차와 혼례복식을 살펴보았다.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복식에는 혼례의 상징적 의미가 잘 표현되고 있다. 혼례로 인한 가정 질서의 확립과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이루기 위해 화평과 행복과 부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가 종교적 기원을 가지고 혼례절차와 혼례복식에 투영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동 슬라브 민족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혼례의 많은 상징적 부분들이 한 여성이 남성의 가정에 귀속되어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변발팔기'나 '관모바꾸기'는 신부가 신랑에게 귀속되고 복종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동 슬라브 민족의 가족구조가 가부장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참 고 문 헌

1) 최수빈, 조우현, 東슬라브민족의 女性 頭飾에 관한

研究 - 未婚女, 既婚女 中心으로 - 복식, 50, 한국복식학회, 2000. 1. 113-129.

2) Цой Су-Бин, Головные уборы восточных Славян, монголыязычных народов и корейцев: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 взаимовлияние, Минск, 1999, thesis.(Choi Su-Bin, Headgears of eastern slavics, mongolians and koreans: mutual interactions and influences, Minsk, 1999)

3) Русские, Москва, Наука, 1999, 466

4) Махашина, Т.С., Свадебный обряд// Русские, Москва 1999, p. 466.(Makashna T.S., Weeding custom//Russian, Moscow)

5) Буслав Ф.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очерки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словесности и искусства., 1881. .1. 46-47.(Buslaev F.I.,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russian folk Literature and Arts, San-Petersburg)

6) Лебедева, А.А., Семья и семейный быт русских//Быт и искусство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осточной Сиб ири. Новосибирск, 1975, ч. II, p. 96.(Lebejeva A.A., Family & Russian Family's Custom//Custom & Art of Russian residents of East Siberia, Novosibirsk, 1975)

7) Власова, И.В., Брак и семья у русских(ХII-началоXXвека)//Русские, Москва, 1999, p. 417.(Vlasova I.V., Marriage & Family of Russian(12-early20C.)//Russian, Moscow, 1999)

8) Ibid p. 418.

9) 최수빈·박찬무, 東슬라브, 蒙古, 韓國人의 頭飾의 比較 研究 - 未婚女, 既婚女 中心으로 -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제5권 1998, 12, 65-66.

10) 최수빈·조우현, 東슬라브민족의 女性 頭飾에 관한 研究 - 未婚女, 既婚女 中心으로 - 복식, 50, 한국복식학회, 2000. 1. p. 118.

11) Маслова Г.С.,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в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ычаях и обрядах XIX-началаXXв., М., 1984, p. 47. (Maslova G.S., National Costume for Traditional Custom of East-Slav in XIX-the Early XX, Moscow)

12) Ibid p. 48

13) 스카프형 관모

14) Запольский М.П., Белорусская свадьба в

- культурно—религиозных пережитках//ЭО., 1893, 1—2, р. 58.
- 15) Прыткова. Н.Ф., Одежда ижор и води// Западнофинский сборник, —Тр. КИПС, 1930, и, 16, р. 327.
- 16) Маслова Г.С.,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в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ычаях и обрядах XIX—начала XXв., М., 1984, 49—50.
- 17) Запольский М.П., Белорусская свадьба в культурно—религиозных пережитках//ЭО., 1893, 1—2, р. 58
- 18) Шейн П.В, Материалы для изучения быта и языка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еверо—Западного края, СПб., 1980, т.1, ч.II р. 379.(Shein P.B., Material for Study to Custom & Language of Russian in North—West Border, San—Petersburg).
- 19) Сумцов Н.Ф., О свадебных обрядах,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русских, Харьков, 1881, р. 152.(Sumchov N.F., About Weeding Custom of in particular russian, Harikof).
- 20) Запольский М.П., Белорусская свадьба в культурно—религиозных пережитках.//ЭО, 1893, 1—2, р. 43.(Japolsky M.P., Belarusian weeding ceremony in culture—religion heritage).
- 21) Никольский Н.М., Происхождение и история белорусской свадебной обрядности, Мн., 1956, р. 115.(Nicolcky N.M., The origin & history of belarusian weeding customs, Minsk)
- 22) Маслова Г.С.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в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ычаях и обрядах XIX—начала XXв., М., 1984, р. 52.(Masloba G.S., National Costume for Traditional Custom of East—Slav in XIX—the Early XX, Moscow).
- 23) Молотова Л.Н., Об одной группе вологодских головных уборов// Музейнаро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омыслы. М., 1972, 286—288.(Molotoba L.N., About one group of bolgod's headgears).
- 24) 수건형 관모나 빨라톡(платок)
- 25) 방의 한모서리(святой угол)
- 26) 러시아식 난방 및 취사용 벽난로
- 27) Волков Ф.,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Украинский народ в его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Пг., 1916, . 2, р. 633. (Bolokof F., Ethnographic particularity of Ukrainian).
- 28) Пашкова Г.Т., Етнокультурні зв'язки українців та білорусів Полісся, Київ, 1978, р. 70.(Pashkoba G.T., Ethnography relation Ukrain & Belarus in Polesia).
- 29) Зеленин Д.К., Женские головные уборы восточных(русских) славян// Slavia, 1926, вып. 2, 315—317.(Jelenin D.K., Women's headgears of east slav)
- 30) Гаген—Торн Н.И., Ма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олос и головного убора в свадебных обрядах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СЭ , 1933, 5—6, р. 88.(Gagen—Torn N.I., Meaning of socery in hear & headgear for weeding custom of east slav)
- 31) Г.С.Маслова,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в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ычаях и обрядах XIX начала XXв., р. 41.
- 32) Мерчалова М. 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м.,1975, р. 35.(Merchaloba M.N., Poem of race costume, Moscow)
- 33) Шангина И.И., Обрядовая одежда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народов в собр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СССР, 159—184.(Shangina I.I., Clothing of ceremony of east slav in the collection of ethnographic museum of USSR).